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2/19℃ 목포 12/17℃ 여수 13/16℃

단기 4342년 (음력 9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20호 1판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조선대학교

무안반도·광양만권 통합 무산

주민여론조사 무안·신안·광양 반대…전국 통합대상 6곳 선정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등을 포함한 무안반도와 여수·순천·광양시와 구례군을 하나로 묶는 광양만권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 16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반면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의 무안반도와 여수·순천·광양시와 구례군의 광양만권은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무안반도의 경우 목포와 무안·신안군, 목포·무안, 목포·신안 등 3개 통합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무안과 신안군의 반대율이 모두 높았다.

목포·무안·신안의 통합안 조사에서 목포는 응답자의 86.3%가 찬성했지만, 무안과 신안은 반대가 각각 57.6%, 64.7%로 높았다.

또 목포·무안과 목포·신안 통합안에 대해서도 목포는 2개 안에 86.3%와 77.6%로 압도적인 찬성을 보냈지만, 무안과 신안지역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6%, 65.6%가 반대했다.

여수·순천과 여수·순천·구례,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3개 통합안을 두고 실시된 광양만 권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됐다.

여수·순천의 2개 시 통합을 묻는 질문에 순천시는 찬성 68%, 반대 32%인 반면 여수시는 찬성 45.4%, 반대 54.6%으로 나타났다.

여수·순천시와 구례군을 묶는 통합안에 대해서는 여수가 74.2%로 반대 응답이 많았던 반면 순천과 구례는 응답자의 51.2%와 58.3%가 각각 찬성했다.

4개 시·군을 한데 묶는 조사에서는 여수와 순천·구례 모두 각각 51.8%, 77%, 63.4%로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광양시만 찬성 18.3%, 반대 81.7%로 통합 반대 여론이 거셌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6개 지역, 16개 시·군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다음달 중 통합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학생을 상대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0일 광주·전남지역 학교 중 처음으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실시된 함평영화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고 있다. 11일부터는 광주·전남 54만여명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NLL 침범 또 서해교전

北경비정 반파 4명 사상설…남측 피해 없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여 북측 함정은 반파된 반면 남측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한 척은 이날 오전 11시27분께 서해 대청도 동방 11.3km 지점의 NLL 해상을 2.2km 침범했다. 우리 고속정은 11시22~25분 경고 통신을 두 차례 보냈으나 북한 경비정은 NLL 침범해 계속 남하했고 우리 측은 11시28~31분께 '사격하겠다'는 경고통신을 2회 실시했다. 이어 우리 고속정은 오전 11시32분, 경고통신을 1회 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하자 11시36분, 북한 경비정 전방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11시37분 우리 고속정을 향해 50여발의 사격을 가했으며 우리 고속정은 외부격벽 등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북한 경비정의 공격에 맞서 우리 고속정은 오전 11시37분 즉각 40mm 함포 100여 발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교전은 오전 11시37분부터 11시39분까지 2분 동안 벌어졌으며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채 11시40분 NLL을 통과해 북한으로 복귀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남 갯벌천일염 세계명품화 박차

내일부터 소금박람회 개최

전남 갯벌천일염의 세계화·명품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소금박람회가 개최된다.

전남도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갯벌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소금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 행사로, 건강과 맛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미식가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특히 갯벌천일염의 우수성을 식품기업 및 일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 소비영역의 다양화를 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전시·박람회를 통해 전남산 갯벌천일염에 관심이 많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는 등 국내외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람회 부대행사로는 목포대 '천일염 및 염생식물산업화 사업단'에서 천일염의 우수성과 효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용소금 피부마사지, 깨소금 만들기, 요리 시연회, 소금비누 만들기, 염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황기연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소금박람회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국제식품산업전과 같이 열려 남도의 식품산업과 천일염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